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②①

2018. 9. 12.(수), 14:00~16:00

그림으로 보는 라틴문화 여행

안 진 옥

갤러리 반디트라소 대표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교육자료→강의 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②①

그림으로 보는 라틴문화 여행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000

www.museum.go.kr

인 쇄 (주)계문사 / (02)725-5216

그림으로 보는 라틴문화 여행

안 진 옥
갤러리 반디트라소 대표

1. 라틴아메리카 미술에서 나타난 정체성

인종의 용광로처럼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미술에 있어서 그들만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콜롬비아 비평가 마르타 트라바에 의하면 “열린 나라”와 “닫혀진 나라”로 20세기 라틴아메리카 현대 미술을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열린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강점기 시대 영향으로 유럽 문화를 선호하여 독립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는 부류의 나라들이다. ‘닫혀진 나라’는 유럽의 모방에서 벗어나 원주민 토착문화 속에 그들만의 정체성을 재발견하여 그들만의 특성을 갖는 미술을 갖고자 하는 부류의 나라들이다. 이 상황은 각 나라마다 겪게 되었던 역사와 주변 지리, 그리고 경제 상황과 맞물려 나누어지게 된다.

일찍부터 라 플라타La Plata강을 통해 서양과 중남미의 무역중심지가 된 아르헨티나는 인종 분포에 있어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계 이민자로 이루어진 백인중심의 사회였으며,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마치 스펀지처럼 유럽의 문화를 흡수했다. 또한 일찌감치 석유 강국으로 자리 잡은 베네수엘라의 문화 역시도 유럽풍이 강하였다.

반면에 내륙지방에 속한 페루,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은 경제 교역 및 문화 교류에서 뒤쳐져 있었으며,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원주민과 혼혈인의 비율이 높았다. 그들은 잉카나 아즈텍, 마야 문명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외부 문화 개방에 폐쇄적이었다. 이것은 이후에 인디헤니즘Indigenism과 연결되면서, 유럽의 모더니즘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로 나타난다.

이렇듯 복잡한 맥락에 놓여있는 라틴 아메리카 미술에 있어 그들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크게 2가지 요소: ‘인디헤니즘indigenism’과

아프리카 혼재 문화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사회 고발성이 강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환상으로의 도피성이 강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 낸다.

인디헤니즘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문화적 분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유한 전통을 회복하여 민족적인 자긍심과 사회적 단결을 도모하고, 라틴 아메리카 문명과 토착적 신화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멕시코, 페루, 과테말라 등의 나라에서는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의 부흥을 통하여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새로운 주장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시각예술을 이용하여, 침략자들의 잔인성을 폭로하고 국민의 저항을 유도를 시도한다. 그것이 바로 벽화운동으로 이어진다.

아프리카 혼재문화

아프리카 피가 흐르는 카리브 섬, 멕시코 동부해 안쪽, 중앙 라틴아메리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그리고 브라질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문화의 종교, 언어, 음악 그리고 조형미술에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의 혼재를 들 수 있다. 강점기 시대를 거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재정권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현실은 탈출구가 없는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가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예술은 환상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또 다른 신화를 엮어 나가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심리적 상태에서 나온 마술적 리얼리즘 혹은 라틴아메리카식 초현실주의로 이해하면 우리는 생경한 라틴아메리카의 현대미술을 이해 할 수 있다.

1) 멕시코의 인디헤니즘Indigenism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강점기 기간 동안 외부에서 들어온 인종과 토착민 간의 다양한 혼혈 인종이 생겨났다. 또한 언어, 종교, 문화에 걸친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외래의 것과 고유의 것이 뒤섞인다. 복잡한 뒤섞임의 문화 혼성 속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디헤니즘’이다.

바로 뒤섞임에서 오는 혼란과 문화적인 분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유한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만의 자긍심을 갖고, 동질성을 찾아 단결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찾아 가는데 커다란 받침대가 되었다.



디에고리베라 ‘강점기이전의 아메리카’ 1950년



디에고리베라의 벽화 ‘멕시코인들의 정치적 비전’, 1923-28년

미술에 있어서는 벽화운동의 세 명의 거장작가중 대표주자인 디에고 리베라 Diego Rivera(1886-1957) 역시도 옥수수가루를 파는 여인, 백합을 파는 여인처럼 멕시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그린다. 벽과 천장을 뒤덮는 그의 그림은 아즈텍 족의 신상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해골과 인간이 혼재된 모습 등을 통하여 인디오의 사상, 우주론, 의학, 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한다. 그는 아즈텍, 마야 문명시대 때의 조각과 도자기 등에 나타난 독특함에 매료되어, 그것들을 작업실에 두고 작품의 소재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그가 인디오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감탄하는 수준에 머무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유는 리베라가 인디오나 메스티조(혼혈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냈을 뿐이지 개개의 인물들을 일반화시켜 그리고, 전통적 정체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현재 민중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포함 되어 있다.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어용화가라는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멕시코에서는 우상으로 존재하는 작가이다.

이에 비해 창녀들을 소재로 연작을 발표한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Jose Clemente Orozco

(1883-1949)나, 공산당 비서로 활동한 경력을 지닌 다비스 알파로 시케이로스 David Alfaro Siqueiros, (1898-1974) 등의 작가는 민중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인종적인 특질보다는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사회적 조건을 훨씬 강조하여 표현했다.

급진적인 정치 혁명들로 요동치던 멕시코에 비하여, 페루는 사회 개혁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치중한다. 페루는 과거 잉카 문명의 위업을 통하여 다른 민족과는 구분되는 인디오의 민족 단결을 유도한다. 그들은 인디오의 공동 생활체인 아이유Ayllu를 모델로 삼고, 케추아Quechua 어를 공통언어로 사용했다. 예술가들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토착민의 생활과 모습들을 재현하고, 잉카의 민속예술에서 영감을 끌어내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2. 불꽃처럼 살다 간 프리다 칼로, 예술과 영혼의 동반자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의 방

세계 여심을 흔들며 놓은 페미니즘의 대표적 선구자 프리다 칼로.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동시에 망가져가는 육체와의 지루한 투쟁이었으며, 사랑의 배신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두 번의 사고였다. 하나는 프리다의 육체를 부숴버린 교통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운명의 반쪽, 디에고와의 만남이라는 사고였다.

1907년 멕시코 혁명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태어난 프리다 칼로는 여섯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 국립 예비학교 시절, 의사를 꿈꾸던 프리다 칼로는 열일곱 살이 되던 해인 1925년 9월 17일 멕시코 독립기념일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하교 길, 남자친구와 함께 타고 있던 버스가 소치밀코 행 전차와 충돌했던 것이다. 전차의 철재 난간이 부러져 그녀의 옆구리를 뚫고 골반을 관통하여 질로 빠져나왔다. 요추, 쇄골, 갈비뼈가 부러졌고 골반은 세 동강이 났다. 심지어 왼쪽 다리는 골절이 열한 군데나 되고, 오른쪽 다리는 골절된 채 으깨졌다. 이 당시를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것이어서, 프리다는 잠시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드로잉과 작품 <버스>를 통해 그 순간을 회상하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 유화는 당시 사고 직전 버스에 타고 있던 원주민, 노동자, 중산층 신사로 구성된 탑승객을 통해 멕시코의 오늘을 살아가는 구성원을 재현했고, 버스 밖에 위치한 ‘웃음’이라는 이름의 가게를 통해 그녀 자신만의 블랙유머를 담았다. 그녀는 곧잘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는 죽음을 놀리고 비웃는다.”라고 말하곤 했다.

프리다의 인생을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인 디에고 리베라와의 만남은 그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상에서 그린 그림을 통해 달라고 디에고를 찾아가면서부터 이루어졌다. 프리다가 21살이 되던 해, 41살이었던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디에고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족력으로 자궁이 기형이었음에도 그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고자 했던 간절하다 못해 절규에 가까운 소망은 세 번의 유산을 겪으며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일하게 석판화로 제작된 <프리다와 유산>에는 벌거벗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프리다와 디에고를 꼭 닮은 유산된 아이가 그려져 있다. 현재 이 그림은 프리다 자신이 모두 파기하여 단 세 개만 남아 있다. 작품 <헨리 포드 병원>에는 1932년 7월 4일 디에고의 부재 속에서 홀로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연이 담겨 있다. 피로 물든 침대 위에서 아직 부른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프리다를 중심으로 그녀의 자궁, 태아, 골반, 기계가 그려져 있다. 소문난 바람둥이였던 디에고는 평생 프리다를 괴롭게 했다. 이 아픔은 <찢어지는 가슴>에서 칼날로 가슴을 찢른 행한 상처로, <추억>에서 화살에 관통당하는 아픔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동생 크리스티나와의 불륜은 프리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겼다. <몇 개의 작은 상처>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실감나게 담겨 있는데, 한 신문 기사에서 부인의 외도에 격분한 남자가 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하고 법정에서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고 말한 데 격분한 프리다가 이와 마찬가지로 디에고 자신에게는 바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아픔을 담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프리다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된다. “지금까지는 디에고를 사랑하는 데 인생을 소비하느라 일에서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디에고를 계속 사랑함과 동시에 진지하게 원숭이(프리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를 그리려 해”라며 자신의 내면에 대한 통찰을 시작으로, 예술적 자아확립을 통해 작품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다. 아픔이 적나라하게 녹아든 그녀의 그림은 거부반응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칸딘스키는 그녀의 그림에 감동한 나머지 전시장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디에고의 방

1886년 태어난 멕시코의 천재 화가인 디에고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뛰어난 데생 실력을 인정받아 12살에 미술 전문학교인 산카를로스 아카데미 입학을 허락받았다. 정부 지원으로 20세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피카소, 모딜리아니, 프라크와 만나 함께 토론을 나누며 후기 인상주의, 야수파 경향의 작품을 그리다 폴 세잔의 영향을 받아 입체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그가 유럽에서 머물렀던 10년 동안 작업했던 큐비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농가>는 디에고가 파리에서 폴 세잔의 작품을 처음 접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세계에 눈을 뜬 순간을 담고 있다.

1921년 유럽에서 귀국한 디에고는 벽화 프로젝트에 참여 하면서 입체파 경향을 버리고 민족주의적 뿌리를 강조하며 고대 멕시코의 찬란했던 문명에 눈을 돌렸다. 그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며 ‘백인도 아니면서 인디오도 아닌’ 멕시코인인 자신들이 품고 있던 서구 백인 문명이 우수하다는 인종적 자괴감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길 원했다. 국민 80%가 문맹자인 그들에게 벽화는 최고의 교육수단이었다. 벽화는 정치인들의 효과적인 홍보물로 자리했으며, 그들과 손잡은 화가들에게는 든든한 재정이 지원되는 등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디에고는 공산주의자이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민족주의자로, 그림을 판 수입은 무조건 도굴범들로 인해 무너져가는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전통 유물들을 사들이는 데 썼다. 프리다는 그런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멕시코 혁명이 고대 아즈텍, 마야 문명의 발생지인 멕시코에게 새로운 세계적인 문명을 부활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64년에는 두 부부가 수집한 유물들을 기반으로 아나우아칼리 인류학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3. 아르헨티나의 현대미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4위라는 물질적 풍요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세계대전을 피해 온 이탈리아, 스페인계 이민자들로 새롭게 인구 구성이 되어 백인인구가 90% 주류이고 겨우 10% 정도가 혼혈 메스티조로 이룬다.

이처럼 선조가 유럽인들이라는 자부심으로서 거만했던 아르헨티나는 유럽에 뿌리를 두었기에 모든 문화 자체가 유럽식이었으며, 또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멕시코의 벽화운동이 중남미 전역에 파급될 때에도 아르헨티나의 모더니즘은 1930년대 대거 유럽에서 후기 인상파, 입체파 등의 그림 공부를 하고 돌아 온 술라르나 에밀리오 페토루티등의 화가들이 아르헨티나로 돌아오면서 더욱더 유럽 편향적으로 변한다.

멕시코의 벽화운동에 이어 브라질, 페루 등이 독립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현대미술 운동이 확산되자 아르헨티나 그들 역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계적 문학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가 편집장을 맡은 “마르틴 휘에로”라는 평론지를 통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유럽의 불가피한 영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아메리카의 정신적 독립운동의 영역이 확산되어 간다 해도 실제 생활에 있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웨덴의 치약과 프랑스의 수건, 영국의 비누를 포기하거나 못 본 척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론과 실제 생활에서의 아이러니컬한 태도를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Social Realism

그러나 예술계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르헨티나 소외된 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그린 작가가 있다. 시골 로사리오 출신의 안토니오 베르니(1905-1981)는 그의 독특한 생과 사실주의적 사회주의 그림을 그린다. 1925년 정부의 장학금으로 파리에 유학하여 3년만에 돌아온다. 그러나 화려한 도시생활의 뒷면에 존재하는 아르헨티나 실상의 비참한 빈민층 생활을 반영하면서 “빵과 일을...”, “실업자”, “데모”라는 사회 고발성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다. 또한 연작 작품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슬럼가의 소년 후아니토 라구나와 창녀 라모나 몬티엘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을 탄생시킨다.



안토니오 베르니
'후아니토 라구나', 폴라쥬,유채



기다림속에 라모나, 판넬위 유채, 1962

포장되지 않은 거리, 쓰레기로 뒤덮힌 거리, 찌그러진 깡통, 버려진 빈병들 산업 폐기물 덩어리 속에 후안니토가 앉아 있고,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 붉은 립스틱의 짙은 화장과 야한 옷차림의 라모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뒷거리에 서성대며 손님들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나와 너의 누이처럼 애잔하게 그려냈다. 작품의 화면에는 실제 쓰레기들을 모아 전시장에 진열하거나 소품들을 화면에 폴라쥬 형식으로 나타내어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의 작품은 뉴욕의 라틴아메리카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의 자리를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아방가르드 탄생

그 후 유럽 성향의 아르헨티나가 군부 통치이후 페론 정권 속에서 독자적인 미술경향의 새로운 아방가르드 운동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헝가리 출신 아르헨티나 이민자 굴라 코시세에 의해 선언문이 만들어진 이름 하여 “마디MADI”와 그의 라이벌격인 구체적미술ARTE CONCRETO를 탄생시킨다. ‘마디’는 지향하는 자체도 애매하여 다다처럼 별의미없이 붙여진 이름이다. 통일성이 없고 비정형적인 것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작업이고 이와 반대적으로 구체적 미술은 “찾지도 말고, 발견하지도 말고: 다만 창작하고 발명 하는 것이다”라는 이론아래 하얀 캔바스를 날카로운 칼로 선을 만든 최근 크리스티와 런던 소더비 경매 1,320만 달러로 최고가를

구사했던 이탈리아인의 아버지와 아르헨티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루시오 웬타나(1899-1968)가 현대 아방가르드의 선두자 역할을 하였다.

4. 정체성을 찾아가는 브라질의 모더니즘 미술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브라질은 유럽 문화에 순종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흑인 혼혈인종을 차별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생겨난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브라질이 유럽의 모더니즘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멕시코 벽화운동의 급진적인 예술과 비교되어 자성의 기미가 더욱 드러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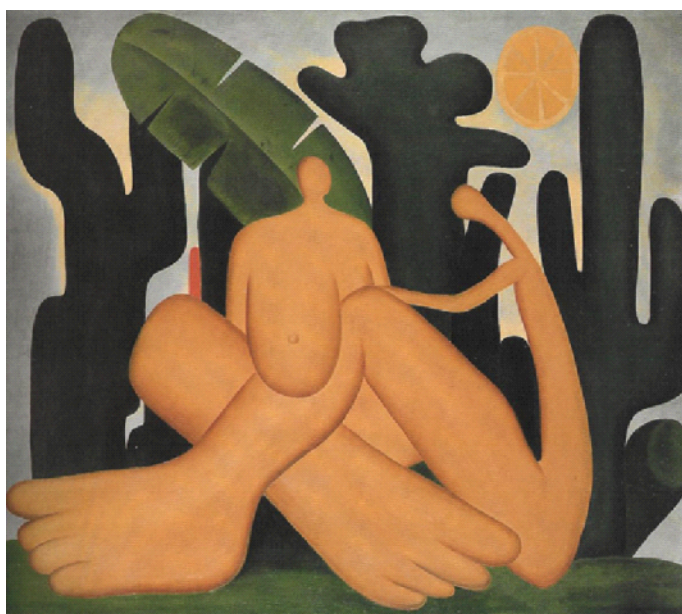
브라질의 예술가들은 ‘민중을 위한 예술’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적 민족주의 Cultural nationalism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성명서나 평론지를 발표하고, 전시회를 개최한다. ‘현대미술주간’Semana de Arte Moderna(1922년)과 같은 행사는 문학과 미술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브라질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그들은 ‘정글과 학교’라는 새로운 시각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열대의 토착적인 문화와 현대의 산업문화를 어우르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적 사고를 지니고 있던 당대의 부유층 지식인과 예술가들에게 급격한 의식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정체성을 모색하는 브라질 모더니즘 미술의 태동기에 활동한 작가로는, 아니타 말파티 Anita Malfatti(1899-1964)와 에미리아누 지 까발칸찌Emiliano Di Cavalcanti(1897-1976), 타르실라 두 아마랄Tarsila do Amaral(1886-1973) 등을 꼽을 수 있다.

근대 시대의 선구적인 여성 예술가로서 아니타 말파티의 불운한 인생은 한국에서는 나혜석의 경우와 비교해볼만 하다. 말파티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베를린과 뉴욕에서 유학을 했으며, 마르셀 뒤샹과 교제를 가졌다. 브라질에서는 1914년, 1917년 두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는데, 당시의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초기의 대표 작품인 <바보 (1915)>는 표현주의 경향의 초상화인데, 비평가들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민속적인 주제로 전향했으나

후기작품에서도 뚜렷한 발전을 보이지 못한 채 전락하고 만다.

사회적 경력이 화려한 에미리아누 지 까발칸찌는 파리에서 미술교육을 받는다. 초기에는 입체파 대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후로는 유럽작가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브라질 작가 특유의 매력이 나타난다. 주로 물라또(흑인과 인디오 혼혈) 여인들과 리오 데 자네이로의 밤 생활 등을 소재로 삼아서 상징주의 적, 표현주의 기법을 혼합하여 그렸다.



Antropofagia(식인주의) - 유화, 126 X 142cm : 1929년 Tarsila

브라질의 색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타르실라 두 아마랄은 강렬한 색상과 기하학적인 단순화를 이용하여 ‘검은 여인Black Woman’들을 그린다. 그녀의 대표작인 <아바포르 (1928)>는 원주민 언어로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당시 브라질 문화운동의 주요 개념이었던 식인주의食人主義, antropofagia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나치게 큰 발을 가지고 있는 나체의 사람과 선인장, 태양을 그린 상징적인 그림은 새로운 양식적 요소와 고유의 색채를 보여준다. 이후 아마랄은 광산지역과 시골 마을을 방문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과거와 뿌리 깊은 민중 문화를 재발견하고,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주제를 다룬다. 화려하고 획일적인 도시보다도

처절하고 애환이 담긴 빈민가에 오히려 생명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진한 주황, 빨강, 초록의 색깔로 칠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5. 콜롬비아 보테로의 똥보를 통해서 나타난 정체성

또 다른 라틴아메리카 식의 조형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한 신형상주의는, 유럽의 현대 미술 사조의 영향보다는 라틴아메리카의 일상문화에 대한 체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그려내고자 했다.

현재 국제 미술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가 톱 10위 안에 포함된 2009년 한국의 덕수궁 미술관과 2014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던 콜롬비아의 세계적인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1932~)는 똥보 그림으로 유명하다. 대상을 재현하면서도 부풀어 올라 터질 듯한 형태에 애매모호한 비례, 비현실적인 공간 설정 등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식의 신형상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문학에서의 마술적 사실주의와 관련하여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자주 등장한다.



[2009년 덕수궁 미술관전시 개막전 기자 간담회 후]

보테로는 서구 조형 양식을 배워온 후에 멕시코 벽화운동을 이끌었던 리베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나에게는 리베라처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젊은 중앙 아메리카 화가들에게 유럽에 의해 식민지화 되지 않은 미술을 창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는 혼혈인의 특성에 매료되었고, 스페인과 고대 인디언 문화의 혼합에도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보여주는 길거리 풍경이나 매춘 장면 외에도 옛 거장인 고야나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재해석해서 그린다거나, 성직자나 군국주의자적인 정치인들을 우화적, 비판적으로 그리는 등의 주제를 반복해 그린다. 이러한 주제는 라틴 아메리카 미술에서 자주 다뤄지는 일반적인 주제들이며, 최근에 이라크 Abu Ghraib(아부그라이브)에서 미국 병사가 이라크 포로들에게 행한 성폭력에 대해 묘사한 작품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6. 쿠바의 환상적 사실주의 대가 윌프레도 램을 보다

윌프레도 램(Wifredo Lam(1902-1982)의 아버지인 중국인 램 얌은 쿠바로 사탕수수 이민을 온 사람이며, 그의 어머니는 인디언과 흑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프리카에서 전래된 ‘칸돔베’의 기도사였던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흑인들의 전통 춤과 의식을 늘 가까이 접한다. 중국 상점을 운영할 정도로 생활이 부유한 그는 스페인으로 유학 가 14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다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파리로 피신하게 된다. 그곳에서 원시종교의 비밀스런 세계가 담겨있는 램의 그림에 매혹 당한 피카소는 그의 전시회에 자신의 모든 친구들을 데리고 갈 정도였다. 큰 의미 없고 가벼운 듯 홍열대는 수가리 음악과 룸바(쿠바흑인들의 춤)의 땅인 하바나로 오랜 유럽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그 속에 흑인들은 뭔가 생생한 원동력으로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흑인들은 백인들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들을 흉내 내고 자신들의 피부에 검은 것에 좌절하면서도, 동시에 혼혈인 들을 경멸하는 이중성은 그를 분노에 차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더욱더 ‘흑인정신에 더욱 철저히 표현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초현실주의를 명명한 앙드레 브레통은 “내 친구 램과 같이 간결하게 객관적 세계와 환상적 세계를 일치 시킨 사람이

결코 없었다”고 극찬 할 만큼 그의 그림은 1943년 ‘정글’에서 빛을 받는다.



〈윌프레도 램-정글, 뉴욕현대미술관 소장〉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에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을 다룬 동질이형의 양식으로,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 미술을 암시하며, 관목의 숲은 밀실공포증과 불분명한 선을 통한 시선의 교란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림 속을 들여다 보면 숨겨진 욕구의 커다란 발과, 토루소, 음탕한 여인의 엉덩이, 성의 타락을 상징하는 가위 등 이것이 흑인들의 정신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카리브의 자연 속에 정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무질서를 인상적 색채와 함께 관능적인 미를 연상케 하며, 동시에 형식의 파괴를 시도한 그의 작품은 뉴욕의 현대미술박물관은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회화 100점 중의 하나로 꼽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으로서 혼종성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종적 혼혈과 문화의 혼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돌아가게 된다.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ez와 인디오 통역자였던 그의 인디오 부인 말린체Malinche 사이에서 태어난 메스티조의 선조는 그들의 정체성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혼혈 후손들의 정체성은 이중적인 문화를 통하여 생명력과 독창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는 모두 식민 시대와 전쟁, 군부독재를 거치는 역사적 격동기를 지나오면서, 문화의 급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그러한 시대 배경은 미술에도 분명 반영되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미술은 내재화에 치중했고,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표출이 많았다. 이러한 같음과 차이들에 대한 고민은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Note

Note

Note

【 2018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 2018. 1. 31.(수)~12. 12.(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 오후 2시~4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의 제목	강사	비고
20	9. 12.	그림으로 보는 라틴문화 여행	안진옥(갤러리 반디트라소)	특별전 '황금문명 엘도라도 - 보물을 찾아서' (8. 4.~10. 28.)
21	9. 19.	공간 · 시간 · 인간의 이야기, 조선지도 500년	장상훈(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지도예찬' (8. 14.~10. 28.)
22	10. 17.	문화유산으로서의 불상, 그리고 박물관	곽동석(동양대학교)	
23	10. 24.	신라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허형옥(국립중앙박물관)	
24	10. 31.	근대 미술의 이해	송희경(이화여자대학교)	
25	11. 7.	한국의 근대 건축	안창모(경기대학교)	
26	11. 14.	元 제국과 고려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전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2018. 12. 4.~2019. 3. 3.)
27	11. 21.	고려 불교사상의 이해	최연식(동국대학교)	
28	11. 28.	동아시아 속 고려 불화	정우택(동국대학교)	
29	12. 5.	고려 후기 지성인의 현실인식	도현철(연세대학교)	
30	12. 12.	고려의 재발견	박종기(국민대학교)	

※상기 강의 일정은 강사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